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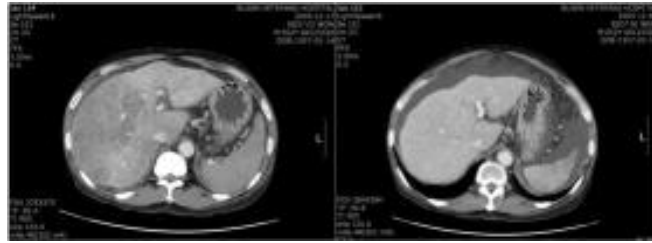
■ S-143 ■

간내 담도암으로 오인된 가성종양 소견을 보인 급성 알코올성 간염 1예

부산보훈병원 내과

*강욱, 김일수, 김지웅, 천치현, 고성현, 김선광

급성 알코올성 간염 환자에서 CT 소견은 미만성 간장종대, 담낭벽의 부종형상비후나 담낭내강허탈, 문맥주위 낮은 흡수영역 등의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분명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CT상 가성종양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들은 내원 당시 시행한 CT상 간내 담도암으로 오인된 가성종양 소견을 보인 급성 알코올성 간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2세 남자 환자가 내원 1개월 전부터 시작된 전신쇠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고혈압과 사회력상 40갑년의 흡연력 및 10년 이상 하루 소주 한병 이상의 음주력이 있었다. 38.1℃의 발열이 있었고 황달, 복부팽만 등이 관찰되었다.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1,510/mm³, 혈색소 11.8g/dL, 혈소판 38,000/mm³이었고 AST/ALT 254/46 IU/L, 알부민 3.0 g/dL, 총빌리루빈 25.46 mg/dL, 직접빌리루빈 15.60 mg/dL, 혈중 요소질소 11 mg/dL, 크레아티닌 0.8 mg/dL, PT 17 초, γGTP 256 IU/L였다. 종양표지자 검사상 AFP 4.75 ng/mL, CEA 19.88 ng/mL, CA19-9 217.31 IU/mL였고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에서 간내 미만성 간전이를 동반한 담도암 의심되는 소견 보였다. 환자 보존적인 치료하며 시행한 추적 검사상 총빌리루빈 6.98 mg/dL, 직접빌리루빈 3.34 mg/dL로 감소 추세 보여 2주 뒤 시행한 추적 CT 검사상 이전에 관찰되던 간내 담도암 소견 보이지 않아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단하고 프레드니솔론을 추가하였고 환자 증상 및 검사 소견 호전되어 퇴원 후 현재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 S-144 ■

고령의 성인에서 간내 담관 확장의 형태로 발견된 간의 중간엽 과오종 1예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¹, 병리학교실²

*권혁용, 한지민, 한영석¹, 박재복², 김병서, 이창형, 김호각

간의 중간엽 과오종(mesenchymal hamartoma of the liver)은 드물게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발병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원시 중간엽의 발생학적 단계의 이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대개 2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견되고 성인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현재까지 18세에서 69세까지 약 20예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증례에서 간의 특징적인 다발성 낭성 종양의 형태가 나타나며, 이러한 종양으로 인한 복통이나 복부 팽만, 상복부 종괴 등이 주된 임상 양상이다. 간세포의 점진적인 소실, 담관 상피 세포의 퇴화, 중간엽의 낭성 변화 등이 흔히 보이는 조직학적 특징이며 드물게 악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적 절제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77세 고령의 환자에서 간내 종양의 동반 없이 간내 담관 확장의 형태로 발현한 간의 중간엽 과오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77세 남자 환자가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상복부초음파검사서 좌측 간내 담관의 확장 소견이 발견되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환자는 특별한 임상 증상은 없었다. 신체 검진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복부 촉진에서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으며 만저지는 복부 종괴는 없었다.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7,300/mm³, 혈색소 12.7 g/dL, 혈소판 290,000/mm³이었고 혈청 생화학검사서 AST 29 IU/L, ALT 27 IU/L, ALP 146 IU/L, GTP 26 IU/L, 총 빌리루빈 0.5 mg/dL, 총 단백질 7.3 g/dL, 알부민 4.2 g/dL, BUN 18.8 mg/dL, 크레아티닌 1.1 mg/dL이었고 혈청 전해질은 정상이었다. 혈청 종양 표지자는 CEA 2.11 ng/mL, CA19-9 9.82 ng/mL로 모두 정상 범위였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실질의 종양 소견은 없었고 좌측 간내 담관의 확장이 있었다. 자기공명담관조영술에서 좌측 간문맥 내측 방향에서 간내 담관의 협착이 보이면서, 간의 제 3분절에서부터 간내 담관의 확장이 시작되어 말초 담관까지 확장되는 소견이 보였다. 영상학적인 진단으로는 담관암이나 재발성 화농성 담관염, 간흡충증 등이 의심되었다. 악성 질환이 배제되지 않아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좌측 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절제 표본에서 간내 담관을 따라 괴사된 병변이 보였으며 낭성 병변은 없었다. 현미경 소견에서 다수의 담관 증식 및 중간엽 기질이 관찰되어, 간의 중간엽 과오종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합병증 없이 퇴원하여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